

Robert Vannoy , 구약 역사, 강의 12

창세기 3 장 - 타락 - 항복 과정, 초기 결과

c. 항복의 과정

우리는 창세기 3장 “죄에 빠진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고, 2. “타락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a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b. “시험의 본질”과 “뱀”. 그래서 우리는 c에서 시작합니다. 개요 시트에 그게 전부입니다. “가을의 세부 사항”, 즉 c. 2번과 c.)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 바로 “항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굴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1. 의심의 주입

뱀이 이브를 유혹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 의심이 주입되는 것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가장 간사하더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이냐?” 이 질문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해롭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입니까? 내 생각에 이 질문에는 암시가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2. 금지 사항을 더욱 엄격하게 함 여자가 하나님을 변호하러 오는 것은 그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이지만, 그녀가 그렇게 함으로써 금지 사항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나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독단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2절에서 그녀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말씀인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고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대답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 자, 당신은 아마도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브 측의 분노나 짜증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신은 아마도 너무 가혹할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중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자녀에게서 그런 반응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원망하고, 그런 식으로 그 원한을 표현하고 왜곡하면서 더욱 엄격하고 경직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표현하는 것은 제한에 대한 분노나 짜증입니다. 여기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독단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창세기 3:2의 진술을 금지 사항과 비교할 때 그녀의 짜증이나 분노를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하십니다.

3. 참소 하나님을 참소 세 번째 단계는 사탄이 4절에서 하나님을 거짓이라고 단호하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이르시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절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4. 참과 거짓을 섞음 네 번째 단계는 5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참과 거짓을 섞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고 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혼합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5절에서 사탄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암시한 것처럼 그것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제 이 장의 끝 부분에 있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연결에서 그 구절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22 절 에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와 같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름의 의미를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정당하게만 존재했던 장소인 아담과 이브의 강탈입니다. 하나님은 가치의 결정자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암시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이 섞여있습니다.

5.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율적이 되다 다섯째 단계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따서 먹은지라. ” 6절에서 우리는 사탄의 주장에 근거한 여자의 인간적인 추론이 그녀를 죄로 인도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생각에 이 과정은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점진적인 행복의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일을 맛보고 먹을 때 비로소 그 경계를 넘는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금지 사항을 어기고 실제로 자신을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규범으로 삼고, 그 자율성은 오직 하느님께만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창세기 3장과 관련된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당신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언급된 “육체의 정욕”, 즉 인간의 감각적인 측면, 즉 육체의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즉 남자의 정욕적인 면, 곧 그의 육체의 식욕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안목의 정욕”, 즉 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열매가 보기에 좋았더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측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유익하다” 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혜를 얻기에 바람직한 지적 측면인 “인생의 자랑”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각적, 심미적, 지적 세 가지 측면이 여기에 결합되어 그녀가 열매를 맺게 된 추론인 것 같습니다.

6. 이브가 아담에게 열매를 주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6절 끝부분입니다. “그녀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받아 먹었습니다.” John Murray는 일부 강의에서 이 구절에 대한 노트에서 남자를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자를 통해서라고 제안합니다. 여기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아담에게 책임이 있었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에 빠지게 된 것은 하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죄가 실제로 언제 일어났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언제 죄를 지었나요? 당신이 그것을 못 박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녀가 열매를 따먹었을 때, 명백히 그녀는 명백히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전에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머레이는 뱀의 제안을 동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점에서 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하와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에 “와,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뱀의 제안을 동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에서 머레이는 죄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당신이 그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대답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고 말하거나 2

절 끝에서 “너희도 만지지 말라” 고 말할 때. 그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항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디. 결과의 갑작스러움 d. 즉, “결과의 갑작스러움”입니다. 과정은 점진적이었지만 결과는 갑작스러웠다. 아담도 열매를 따자마자 7절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첫 번째 것은 벌거벗음의 수치입니다.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이제 여러분은 5절에서 사탄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식사할 때 본문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발견한 것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벌거벗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이것이 성적 의식의 기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매우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타락한 후에야 성적 의식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됩니다. 성욕과 성적 의식이 죄로 인해 생겨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성적 의식은 죄가 아니며 죄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의식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로 인해 발생하는 수치심과 벌거벗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담과 이브 사이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모든 인간 관계의 왜곡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아담과 그 아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하여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치마를 삼느니라. 나는 이것이 아담과 이브 사이의 관계에서 조화와 순결의 파괴를 가리키는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치심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죄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물론 더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죄와 왜곡된 관계로 인해 남자든 여자든 인간과 동료 인간 사이의 소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치심은 반사작용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용하기에 좋은 용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수치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언가에 의해 촉발되는 일종의 감정적

느낌입니다. 죄책감에서 나오는 감정인 것 같아요. 원인은 다양할 수 있고, 벌거벗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을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죄책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체 노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문화나 양육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아시 다시피 일부 문화권에서는 문화가 벌거벗음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수치심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벌거벗음에 대해서도 수치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죄책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타락 직후에 벌거벗었음을 깨닫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타락한 후에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타락의 결과로 죄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동료를 찾고 착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료 인간을 착취하려는 타락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인간 반응이 됩니다. 나는 그것이 성적인 관계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적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책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반사”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은 죄와 죄책감의 결과로 올 수도 있지만,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뻔뻔함은 상대방에 대한 성적 착취를 조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며 성적 착취를 조장합니다. 수치심은 그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의복은 타락한 세상에서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진정한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오늘날 “진정한 사랑”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배하는 성경적 의미의 진정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이 있는 곳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수치심이 크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의 내용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참된 사랑이 지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이 있는 곳에서만 그 기능은 뻔뻔스럽게 뻔뻔스러워지지 않고 사라집니다. 제가 보기에 결혼 관계 내의 상황에서는 타락 이전의 상태에 접근할 수 있지만 타락한 세상에서는 결코 완벽하게 실현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두 사람이 눈을 떠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더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 둘째, 처음에는 여기에서 다루어진 더 큰 질문, 즉 아담과 이브 사이에 소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취 경향이 있는 소외감은 다른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성적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여기서는 즉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나는 이 문제가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더라도 노아의 나체 노출뿐만 아니라 일종의 변태적인 성적 착취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auren Emanuele, Alli Cariveau , Morgan Valliere 및 편집자 Phillip Valdes가 각본을 작성함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